

다. 그렇게 되면, 광양항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로테르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광양만권의 현재 산업구조가 재편될 개연성이 있다. 현재의 중화학 및 철강중심에서 조립금속, 정밀전자 및 첨단산업, 그리고 항만물류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의 경제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사진1-89 : 코일 운송 기차



사진1-90 : 컨테이너 박스 운송

제4절 노동 · 관광

제4절은 노동 · 관광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 분야는 노동단체와 산업부문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1. 노동

광양시의 사업체 종사자는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고 연관단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후 광양제철소가 안정되고 연관단지도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표1-73 >은 1996~2001년까지의 광양시의 사업체 총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별 종사자수는 1996년에 41,686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1년에는 42,063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개인 사업체 종사자수가 1996년에 11,642명에서 2001년에 14,018명으로, 회사법인인은 23,987명에서 21,977명으로, 회사 이외의 법인에 종사자는 5,636명에서 5,554명으로, 비법인 종사자는 421명에서 514명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회사법인인은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고용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개인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사법인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구분별 종사자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단독 사업체 종사자수는 증가한 반면, 공장이나 지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분	합계		조직형태별								사업체구분별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		단독		공장, 지사		본사, 본점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6,841	41,686	5,780	11,642	553	23,987	383	5,636	125	421	6,401	22,584	419	17,666	21	1,436
1997	7,173	41,860	6,064	12,636	608	22,094	431	6,568	70	562	6,652	25,027	488	15,896	33	964
1998	7,387	40,860	6,305	12,442	553	22,187	383	4,974	146	1,257	7,099	25,613	249	13,821	39	1,426
1999	7,632	42,954	6,451	13,260	617	23,380	349	4,907	215	1,407	7,237	25,891	346	15,620	49	1,443
2000	7,734	44,152	6,569	15,720	581	22,249	366	5,318	218	865	7,387	28,236	307	14,483	40	1,433
2001	7,457	42,063	6,318	14,018	622	21,977	360	5,554	157	514	7,111	25,974	309	13,980	37	2,109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

< 표1-74 >는 종사자규모별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구분하였다. 광양시의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1~4명의 사업체에 종사자는 2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00명 이상 사업체에는 광양제철소로 여기에 종사자는 17.2%로 두 번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광양제철소가 광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49명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자가 11.5%로 나타났다. 광양시에서 종사자규모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규모는 종사자수 300~499명 규모의 사업체로 83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종사자규모별에서 1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

자 비율은 43.8%로 나타나 광양시의 노동자는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양제철소의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의 사업장으로 종사자규모별에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분	합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6,841	41,686	5,899	10,038	491	3,057	227	3,068	136	4,168
1997	7,173	41,860	6,190	10,719	502	3,081	246	3,326	140	4,450
1998	7,387	40,860	6,570	11,281	396	2,455	197	2,640	128	4,081
1999	7,632	42,954	6,698	11,775	482	2,989	222	3,051	134	4,217
2000	7,734	44,152	6,569	12,004	618	3,910	256	3,440	183	5,467
2001	7,457	42,063	6,389	11,537	577	3,660	237	3,229	157	4,819

구분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50	3,430	28	4,641	3	1,126	6	4,329	1	7,829
1997	58	3,878	29	4,702	2	704	4	2,356	2	8,644
1998	54	3,613	33	4,959	3	1,019	4	2,294	2	8,518
1999	59	4,010	28	4,893	2	714	6	3,698	1	7,607
2000	71	4,691	33	5,417	1	403	2	1,420	1	7,400
2001	65	4,365	26	4,368	2	830	3	2,005	1	7,25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

<표1-75>은 광양시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체는 1994년에 104개에서 2001년에 152개로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11,875명에서 11,584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의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노동자에 대한 월간 급여액은 1994년에 1,795억원에서 3132억원으로 74.5%정도 증가하였다. 1994년에 1인당 년평균급여액은 1,512만원에서 2001년에는 2,704만원으로 78.8% 증가하였다.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사업체수(개)	103	129	138	155	137	137	150	152
종업원수(명)	11,875	11,918	12,072	11,988	11,572	11,898	11,870	11,584
연간급여액(백만원)	179,578	202,035	235,452	238,242	233,060	262,900	287,708	313,253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

2. 관광

21세기는 문화 및 관광의 시대로서,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자원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광양시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개인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 개인 이동성의 증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관광 및 여가의 대중화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산업 등 모든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21세기의 주도적인 성장산업인 관광·문화산업은 개발방식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계승시키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소득



사진1-91 : 광양시 관광 안내도

증대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관광 및 여가활동의 성장으로 관광 및 문화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관광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광 및 문화활동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회의(컨벤션)산업,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단위지구의 관광개발계획,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관광·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자원 그리고 지역의 사회와 경제적 특성을 외래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마케팅(city-marketing)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도시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를 관광 자원화·관광 명소화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지를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1)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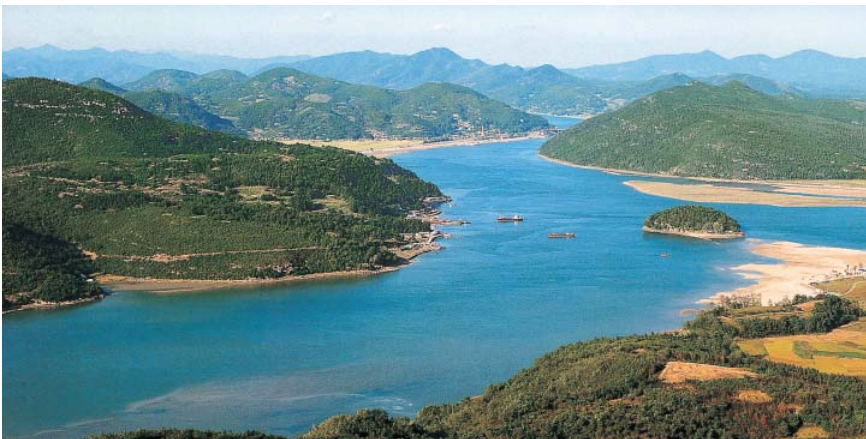


사진1-92 : 섬진강 하구 자연 경관

광양시는 산악경관형 관광자원, 수변경관형 관광자원,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 축제·이벤트, 산업관광자원 등 다양한 관광매력물(attractions)이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자연경관형 관광자원은 주로 백운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입지해 있다.



사진1-93 : 어치 계곡

백운산은 산악경관 감상, 체험학습, 식생관찰, 등산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고, 백운산 4대 계곡(성불, 동곡, 어치, 금천)은 자연발생적 유원지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섬진강변은 자연경관 감상, 생태체험, 수변위락 등을 목적으로 관광활동이 가능하여 최근 매화마을 비롯한 섬진강변은 접근체계의 개선으로 춘계와 하계에 수변형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표1-76>와 <표1-77>와 같이 백운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분포해 있다. 불교유적 및 사찰유적으로는 옥룡사지, 중흥사, 성불사 등이 있고, 역사유적으로는 마로산성, 중흥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섬진나루터가 있고, 문화유적은 광양향교, 유당공원, 학사대, 매천유

적, 형제의병유적, 김시식지 등이 있다.

<표1-76> 광양시의 문화재 지정 현황

구분	문 화 재	지 정 구 분	소 재 지
국 가 지 정	옥룡사지 일원	사적 제407호	옥룡면 추산리 302번지 일대
	중흥사 삼층석탑	보물 제112호	옥룡면 운평리 산 23번지
	유당공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 목성리 193번지
	장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광양읍 칠성리 1009-4(기능보유: 박용기)
도 지 정	김시식지	기념물 제113호	태인동 819-1번지
	마로산성	기념물 제173호	광양읍 용강리 78번지
	불암산성	기념물 제177호	진상면 비평리
	중흥산성	기념물 제178호	옥룡면 운평리
	성황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5호	성황동 산 137-17번지
	광양향교	유형문화재 제111호	광양읍 우산리 509번지
	중흥사석조지장보살반가상	유형문화재 제142호	옥룡면 운평리 산 23번지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유형문화재 제182호	옥룡면 동곡리 산 196-1번지
광양궁시장	무형문화재 제12호	광양읍 읍내리 285번지	

〈표1-77〉 광양시 주요 관광자원의 현황

구분	관광자원	주요 관광매력물(시설)	관광활동	
자연	백운산	· 해발 1,218m · 백운산정상, 신선대, 상백운암, 백운사, 얼불봉, 노래미봉 · 4대계곡(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 · 900여종이 식생(백운란, 백운배, 백운기름나무 등)	등산 계곡휴식 식생관찰	
	섬진강변	· 백사장, 수변경관, 매화마을, 문화유적(섬진나루터)	경관감상 수변위락	
	휴양림	자연 백운산	· 120ha(36만평), 천연림과 인공림의 조화 · 휴양시설(숙박, 수련장, 주차장, 편의시설, 체육시설)	휴양, 위락 청소년수련
		드래이골	· 448,651㎡, 섬진강과 수어뎀 경관, 삼림욕 · 휴양시설(산림욕장, 방갈로, 물(눈)썰매장, 휴게시설)	휴양, 등산 위락
		매화마을	· 매화단지, 청매실농원, 매화축제 · 섬진강 수변경관과 조화	상춘관광
		망덕포구와 배알도	· 섬진강과 광양만의 분기 지역 · 수변경관, 하계위락, 전어축제	식도락 수변위락
문화유적	옥룡사지	· 통일신라대 고승 도선국사 도장 · 도선국사와 통진대사 부도탑지 및 비석지(사적 제407호) · 백계산 동백림(7ha에 동백 7천여본)	유적답사 동백림감상	
	중흥사	· 임진왜란 호국의 요람(왜군와 의병의 격전지) · 중흥산성, 석조지장보살반가상	유적답사	
	4대산성	· 마로산성(600년경 백제시대 축조, 둘레 550미터) · 중흥산성(고려시대 축조, 임란때 의병과 승병 훈련장) · 불암산성(600년경 백제시대 축조, 둘레 500미터 석성) · 봉암산성(600년경 백제시대 축조, 둘레 100미터 석성)	유적답사	
	광양향교	· 1398년경 건립, 1600년대 재건, 조선시대 지방교육 기관 · 대성전, 풍화루, 명륜당, 재실, 교궁 등의 전통건축미	유적답사	
	유당공원	· 1528년경에 조성된 전통공원 · 팽나무,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수양버들	유적경관감상	
	기타	· 성불사, 섬진나루터, 학사대, 매천유적지, 형제의병유적지	유적답사	
축제이벤트	백운약수제	· 경칩일에 백운산 고로쇠(골리수)를 주제로 한 제례 · 약수제단 및 약수제례, 국악한마당, 약수시음	약수체험	
	매화축제	· 매화 향기와 섬진강 경관을 배경으로 축제(3월) · 문인시화전, 전국매화사진촬영대회, 국악한마당, 매화가요제	경관감상	
	전어축제	· 주제 : 망덕포구와 광양만 일대 토속민요 전어잡이노래 · 전어잡이노래, 전어회시사회, 용지큰줄다리기, 버꾸놀이농악	문화체험 식도락	
	숯불구이축제	· 백운산 참숯과 숯불구이 전통의 계승 · 숯불구이시식, 전총흔례식, 좌도광양굿(농악), 국악한마당	식도락 문화체험	
	기타	· 광양버꾸놀이, 전어잡이노래		
산업	광양제철소	· 산업관광자원, 연간 약 30만명 방문	견학	
	컨테이너항	· 광양만과 컨테이너항 경관(야경), 흥보관(건립예정)	견학, 경관	
	관광상품(토산품)	· 광양장도, 궁시, 고로쇠, 밤, 매실, 작설차		



광양시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업적 관광자원으로서 자원성이 매우 높은 광양제철소와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입지하여 많은 산업적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광양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축제·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백운약수제는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경칩일(3월 5일 또는 3월 6일)에 행사가 개최되고, 매화축제는 다압면 섬진마을(매화마을)과 섬진교 둔치에서 매년 3월 중에 개최되고, 전어축제는 진월면 망덕포구 및 선소 일원에서 매년 9월말에, 숯불구이축제는 광양읍 서천면 일대에서 매년 10월 중에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광양시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업적 관광자원으로서 자원성이 매우 높은 광양제철소와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입지하여 많은 산업적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이후 산업적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약 30만명의 관광객이 산업시설 견학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한편 광양컨테이너부두 또한 광양제철소와 함께 산업적 관광지로 기능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학생 등의 산업시찰 및 수학여행단이 광양컨테이너부두를 방문하고 있고,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면 관광객의 방문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컨테이너항 홍보관 건립, 견학코스 개발, 랜드마크(landmark)와 조망 기능을 가진 가칭 아시아타워(Asia-tower)의 건립 등이 실현되면 컨테이너부두의 관광매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 밖에 광양시에는 지역특산품, 먹거리, 놀거리도 풍부하다. 특산품으로는 장도(괘도), 궁시, 고로쇠약수, 밤, 매실, 작설차 등이 있고, 향토음식으로 광양 숯불구이, 재첩국(회), 전어회, 흑염소 숯불구이, 멧돼지 숯불구이, 토종닭 숯불구이 등이 있다. 놀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것으로는 4대 축제를 비롯하여 용지큰줄다리기, 광양버꾸놀이 농악, 전어잡이 노래 등이 있다.

광양시의 관광자원을 몇 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1) 백운산

한반도의 남단 중앙부에 우뚝 솟은 해발 1,218미터의 백운산은 봉황, 돼지, 여우의 세 가지 신령한 기운을 간직한 영산이라고 전하여 온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호남벌을 힘차게 뚫어 내리는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갈무리한다. 또한, 900여 종이 넘는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보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정맥(湖南靜脈)을 완성하는 산으로 백두산~금강산~태백산~속리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정맥이 마이산~

내장산~무등산~제암산~조계산을 힘차게 달려와 천리여정을 백운산에서 완성한다.

섬진강 동편에 지리산을 두고 “ㄷ”자형으로 뻗어 내린 호남정맥의 모든 산들이 섬진강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지만 일등공신은 단연 백운산이다. 마지막 150리 물길을 이루어서 광양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백운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운산은 1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4개의 능선이 남과 동으로 흘러내리면서 4개의 깊은 계곡(성불(成佛), 동곡(東谷), 어치(於峙), 금천(錦川))을 만들어 놓고 있다.



사진1-94 : 백운산 정상

(2) 4대 계곡

동곡계곡은 백운산 계곡 중 정상과 정상서편 파리봉 사이에서 발원하여 옥룡면을 가로지르고 광양읍 동천을 거쳐 초남 앞바다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백운산 계곡 중 가장 큰 계곡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폭이 넓어 가족 단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찾는 인파도 많다.

성불계곡은 비교적 아담한 규모에 속하는 계곡으로 곳곳에 평평한 바위가 많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대비되어 좋은 경관을 이루고 수림이 울창하여 한여름에 피서지로 적격이며 가을단풍 또한 일품이다.

어치계곡은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계곡으로 백운산 4대 계곡 중 가장 깊고 운치 있는 계곡이다. 7km에 이르는 계곡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있고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주변 풍광은 지리산 계곡과 견줄 만 하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산새소리에 세상의 시름을 잊고 한 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하다는 오로대가 있다.

금천계곡은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배를 짚다는 옥녀봉에서 발아래 섬진강이 굽어보이는 백운산 뒤편 능성이를 따라 신비의 계곡이 펼쳐진다. 광양 다압면과 하동을 잇는 섬진강 다리에서부터 강을 따라 16km정도 섬진강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고 차에서 내려 1km정도 걸으면 동동과 서동으로 나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그대로 보존된 계곡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맑은 강이며 전남북과 경남의 주변고을에 양질의 식수와 농업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영호남의 젓줄이며, 관광지과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3) 섬진강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하여 550리 물길을 광양만에서 마무리 짓는 섬진강은 맑은 물 수려한 경관과 함께 강 주변에 유서 깊은 문화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맑은 강이며 전남북과 경남의 주변고을에 양질의 식수와 농업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영호남의 젓줄이며, 관광지와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섬진강의 이름은 본래 모래내 또는 다사강, 두치강으로 불리어 오다가 고려 우왕(1385년 경)때 섬진강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말기 우왕때에는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시기인데 광양만과 섬진강에도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였다. 한번은 왜구들이 경남 하동쪽에서 강을 건너 광양쪽으로 침입하려 하자 진상면 섬거에 살던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8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금의 다압면 섬진마을 나루터로 떼를 지어 몰려와 울부짖자 왜구들이 놀라 도망쳤다고 한다. 이때부터 당시 두치강으로 부르던 강을 두꺼비 “섬(蟾)”자를 따서 섬진강으로 부르고 있다.

강 좌측에 지리산, 우측에는 마이산 - 내장산 - 무등산 - 사자산 - 조계산 -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ㄷ”자모양의 산줄기인 호남정맥에 둘러싸여 맑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청정물고기의 대명사인 은어와 누치, 참게가 살고 있으며, 강 하류 지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갯조개(재첩) 민물장어, 백합이 잡히고 있어 강의 수질이 맑고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준다.

(4) 광양만



광양만은 여수·남해반도가 천연적인 방파제 기능을 해줌으로써 항상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이 정박하기에 안전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이 다니기에 편리한 곳이다.

전남의 동부권과 경남의 서부권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수산물의 보물창고로써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국제무역 산업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광양만은 여수·남해반도가 천연적인 방파제 기능을 해줌으로써 항상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이 정박하기에 안전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이 다니기에 편리한 곳이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왼쪽에 하동, 남해, 오른쪽에 순천, 여수가 자리 잡고 있는 광양만 연안에는 예로부터 크고 작은 포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광양만의 해상교통로는 1900년대 초기 까지만 해도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하동의 화개장터와 구례,

곡성 등 내륙 깊숙이 연결되었다.

수산물의 보물창고인 광양만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여수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며, 1980년대에는 광양제철소가 세워졌으며, 이어서 1997년 12월에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계속해서 2, 3단계 부두공사와 함께 울촌공단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광양만 연안에는 대규모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광양만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새로운 산업지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은 '98년 1단계 4선석 개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33개 선석이 건설되어 앞으로 광양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국제무역의 중심항으로, 동북아의 물류거점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광양만 연안에 산업시설이 자리하면서 밤이면 불야성을 이룬 야경이 절경을 이룬다. 광양시청이 위치한 중마동의 가야산 중북도로에서 내려다보는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여수 산업단지의 야경이 뛰어나고, 봉장어구리로 유명한 초남포에서 건너다보는 여수산업단지과 울촌산업단지의 야경도 대단하다.

(5) 유당공원

1528년 당시 광양현감 박세후에 의해 만들어진 유당공원은 광양읍 목성리에 있으며 팽나무, 이팝나무와 함께 수양버들이 많이 심어져서 '유당공원' (버들못)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10년 경 나무가 많이 베어져서 울창하던 고목나무 숲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년 묵은 고목나무 수 십 그루가 남아있어서 연못 풍경과 한데 어우러져 고전적 조경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1-95 : 유당공원

유당공원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칠성리의 당산이 호랑이가 엮드린 형국이고 읍내리는 학이 나는 형국인데 남쪽이 허하다 하여 늪지역에 연못을 파고 수양버들과 이팝나무, 팽나무를 함께 심었는데 현재에는 수 십 그루의 팽나무와 수양버들,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가 보존되어 온다.

유당공원이란 명칭은 못과 수양버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근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개의 공원이 고지대에 위치한 것에 비해 유당공원은 저지대

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당공원은 조성 당시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실은 바람을 막아 주는 구실을 하였고 바닷물에 되쏘이는 햇빛을 막아 주는 역할까지 하였다. 또한 동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에서 터미널 로터리와 유당공원 구간에 조성된 숲거리는 왜구들로부터 광양읍성을 은폐시켜 주는 기능을 하였다.

(6) 매화마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에 위치한 매화마을(본명 : 섬진마을)은 이른 봄이면 매화꽃으로 뒤덮히고, 마을 주변 밭과 산 능선등 10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가 꽃을 터뜨리기 시작 하는 3월초부터 3월말까지 매화마을은 봄맞이 관광객으로 붐비게 된다. 특히 매화꽃 사이로 내려다보는 섬진강 풍경은 꽃과 산과 강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룬다. 해마다 3월 중순이면 매화축제가 열린다.

(7) 망덕포구와 배알도

배알도는 섬진강 하구 태인도의 맨 북쪽에 자리잡은 해수욕장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의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배알도라는 이름은 해수욕장 건너편의 망덕산(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소재)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1940년경 배알도에 정자가 세워지고 주민들이 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게 되면서부터 망덕리해수욕장이라 불리다가 점차 백사장이 줄어들면서 1970년말에 폐장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휴식공간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90년에 배알도해수욕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장되었다. 백사장의 길이는 500m, 넓이 50~200m이다. 새로 심은 해송 500여 그루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전보다 교통사정이 편리해졌다.

(8) 옥룡사지(동백림)

옥룡사지는 통일신라말의 뛰어난 고승이자 한국풍수지리의 대가인 선각국사 도선이 35년간 머무르면서 수백명의 제자를 가르치다 입적하신 곳으로, 우리나라 불교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천년의 불교성지이다.



옥룡사지는 우리나라 불교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천년의 불교성지이다.

옥룡사지는 옥룡면 추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옥룡”이라는 지명은 도선의 도호인 “옥룡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온다. 옥룡사지를 싸안고 있는 백계산(253m)은 주산인 백운산(1,218m)에서 뺀어 내린 지맥으로 형성된 아담한 산으로 백운산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옥룡사는 신라 말에 조그만 암자였던 것을 도선국사가 864년에 중수하여 거처하였으며, 수백명의 사문들이 그의 법문을 듣고자 몰려들어 “옥룡사과”란 지과가 형성되자 몰려드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인근에 운암사라는 사찰을 추가로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옥룡사는 몇 차례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세를 이어오다가 1878년 화재로 소실된 후 폐찰 되었으며 현재 서 있는 대웅전은 1969년에 건립되었다. 옥룡사지에는 도선국사와 수제자인 통진대사의 비와 탑이 세워져 있었으나 1920년경에 모두 없어져 버리고 비문만이 탁본되어 “동문선”등에 전해온다.

옥룡사지 주변에는 도선국사가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심었다는 것으로 전해 오는 동백나무 7천여 본이 7ha에 걸쳐 울창한 동백 숲을 이루고 있는데 험난한 역사에 휘말려 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동백들만이 그 뿌리를 견고히 내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9) 중흥사

임진왜란 때 왜군과 의병의 격전지였던 중흥산성 옛 터전에 둘러싸여 있는 호국사찰 중흥사는 통일신라말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화재로 폐사되어 이후 작은 암자가 건립되어 여승의 힘으로 유지되어 오다 1936년 중건하였으나 다시 폐사가 되었다. 1963년 독지가 하태호에 의해 재중건되어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었다. 한편, 중흥사에는 국보 103호인 쌍사자석등(광주국립박물관에 보관)과 3층석탑(보물 제112호), 석조지장보살반가상(도유형문화재 제142호) 등의 문화재를 간직하고 오늘날 호국사찰로써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옥룡하운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준다. 산자락마다 울창한 참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숲도 넉넉하고 맑은 계류와 어우러져 오랜 세월 인적이 닿지 않은 처녀지 같아 땀기머리 18세 소녀가 미소를 띠며 안겨올 것 같다. 그러나 이렇듯 수려한 풍치의 뒷면에는 그 옛날 왜군과 의병의 격전지로 술한 의병들이 피 흘리며 산화한 슬픈 역사를 간직한 중흥산성 옛터가 남아있다.



성불사는 1천년 전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40여 개의 암자를 간직했던 거대사찰로 전해 오고 있다.

(10) 성불사

성불사는 1천년 전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40여 개의 암자를 간직했던 거대사찰로 전해오고 있다. 당시에는 이곳에서 수행을 닦던 스님만 해도 40명이 넘게 있었고 사대부중(스님과 남여신도)의 수가 1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대부중의 공양을 위해 성불계곡에는 12개의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쉴 새 없이 방아를 찼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지만 아직도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절구통이 4개 정도가 성불사 앞 계곡에 현존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불사 주변에는 터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 이러한 거찰이 어느 시기에 존재했으며 어떠한 연유로 소실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적 보존 자료가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30여 년전 무현스님이 토굴같은 초가삼간만이 남아 있는 이 곳에서 불사를 시작할 때 발굴된 성불사라는 절의 이름이 음각된 기왓장만이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성불사는 현재 큰 법당인 대자보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극락전과 관음전이 있고 양 옆에서 요사체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사찰입구에는 사대천왕이 수호하고 있는 범종각이 세워져 있고 범조각을 지나면 오층 불사리탑이 웅장하게 치솟아 있다.

(11) 김시식지

태인도(광양시 태인동)는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으로 양분이 풍부한 담수가 흐르고 풍부한 갯벌이 넓게 분포되어 예로부터 각종 수산물 양식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황금어장으로 불리어 왔다. 이러한 자연적 지형적 여건으로 1640년경 김여익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김양식이 시작되었다.

김양식법 창시자 김여익은 전남 영암출신으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조정이 항복하자 태인도에 숨어살던 중에 소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이용한 김 양식 방법을 창안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광양 김은 왕실에 바치는 특산물로 인기가 높았는데 하루는 임금이 광양 김을 반찬삼아 수라를 맛있게 드신후 음식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한 신하가 “광양 땅에 사는 김 아무개가 만든 음식입니다.”고 아뢰자, 임금이 “그럼 앞으로 이 바다풀을 그 사람의 성을 따서 김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분부하여 ‘김’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인공양식법이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역사적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해태양식이 학문적 기록으로는 1924년 발간된 『朝鮮の水産』 1호와 1942년 간행된 『조선어업조합 요람』은 각각 완도 시식실을 주장하고 1925년 발행된 『朝鮮の水産』 2호와 몇년 후에 발행된 44호는 광양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14년 당시 광양현감이었던 허담이 지었다는 김여익공의 묘비에는 1640년 김여익공이 태인동(당시 인호도)에 들어와 해태를 시식하였다고 적혀 있다.



1714년 당시 광양현감이었던 허담이 지었다는 김여익공의 묘비에는 1640년 김여익공이 태인동(당시 인호도)에 들어와 해태를 시식하였다고 적혀 있다.

2) 관광 지원 및 서비스시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표1-78>과 같다.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95개 업소, 1,909개 객실을 갖추고 있고, 민박은 129개 업소, 636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광양읍과 광영동, 중마동에 광양시의 숙박업소 대부분이 집중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극소수의 업소만이 있다. 민박은 옥룡면·다압면·봉강면, 진상면의 4개 면에 집중되어 있고, 민박집은 대부분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광양시의 숙박시설은 숙박과 민박의 지역적 편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양시의 숙박시설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광영동	중마동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숙박	업소	44	3	2	5	26	15	-	-	-
	객실	859	57	17	64	504	408	-	-	-
민박	업소	-	-	17	-	-	-	14	67	31
	객실	-	-	44	-	-	-	93	373	126

자료 : http://gwangyang.go.kr/korean/tour/guide/guide_02.html, 필자정리.

광양시의 관광산업은 자연적 관광자원을 제외한 숙박시설, 음식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위탁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표1-79>는 광양시의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체 현황이다. 광양시의 여행업체는 1991년에 5개 업체에서 1992년에 15개 업체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에 해외여행업체 2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광양시민들의 해외여행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기 위한 결과이다. 여행업체들이 계속 증가하다가 1997년에

최고를 이루어다 그 이후에 감소하여 증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이후 급격한 감소는 IMF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여행업	국내	5	14	13	15	13	15	19	14	14	13	14
	국외	-	1	2	3	4	7	9	7	8	8	8
	계	5	15	15	18	17	22	28	21	22	21	22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

3) 관광객의 이용행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보편적인 국민관광시대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관광활동인구가 급증하였고 전남권의 관광활동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표1-8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양시의 관광객수는 1992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1-80>은 1991년 이후 광양시의 관광객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해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면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1991	1992	1993	1994 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내국인	124,011	799,516	976,269	756,657	857,555	926,933	709,282	696,455	737,533	830,195	915,176
외국인	340	633	1,434	1,981	1,986	1,719	2,363	81,154	2,055	4,300	5,200
계	124,351	800,149	977,703	758,638	859,541	928,652	711,645	777,609	739,588	834,495	920,376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

최근까지 광양시의 관광수요는 광양시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특성상 봄과 여름의 2계절형 이용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가을철 관광객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3계절형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특히 광양시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특성상, 광양만권 일원의 도시민들이 하계에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당일 방문하는 이용 패턴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상대적 원격지로부터 광양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주로 섬진강 연안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탐방하는 이용행태가 우세하며, 단체관광객들 역시 통과 여행의 코스로 광양시를 지나치는 수준의 단편적 방문이 우세하다.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재기간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 하계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하계 관광객의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재기간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 하계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경우, 당일 관광객보다 체류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광양시의 관광시장은 계절별로 보면 하계집중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 및 관광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휴식·휴양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정보통신

1. 우편시설의 변천과정과 분포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시작된 것은 강화도조약 이후로, 우편업무를 담당한 우체국의 기원은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이다. 우정총국의 설립으로 기존의 역참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근대적인 통신업무가 사라지고 근대우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 17일 만에 갑신정변의 발발로 우정총국은 폐쇄되고 이후 10년 동안 다시 역참제에 의한 통신업무가 계속되었다.

그후 1895년(고종 32)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1895년 7월부터 서울과 인천간에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우편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우체국은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1895년에 서울과 인천우체사 등 8개 우체사가 신설되었고, 다음해인 1896년에는 나주우체사 등 16개 우체사가 속속 개설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에서 최초로 우체사가 문을 열었고, 이듬해인 1897년 12월에는 무안(목포)에 무안우체사가 개설되었고, 나주우체사가 광주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전라남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나주우체사는 광주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1902년에 들어와 장흥지방에 광주우체사 장흥지사가, 제주에는 제주우체사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 후 1898년에는 전국에 임시우체사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축하였는데, 전라남도 지방에는 그 해 6월 1일을 기하여 우체사가 없는 각 군지역에 임시우체사가 일제히 개설되었다. 광양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늦게 임시 우체사가 개설되